

기후변화로 사라져 가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

- DMZ자생식물원 북방계식물전시원 특별개방 및 북한식물 전시(5.10-5.31)

산림청 국립수목원(원장 최영태)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「DMZ자생식물원」에서 비개방전시원인 ‘북방계식물전시원’을 특별 개방한다.

봄은 늦게, 여름은 일찍 찾아오는 편지봄의 기후 특성 때문에 이 시기에만 꽃을 피우는 DMZ일대의 식물을 볼 수 있다. 또한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만날 수 있으며, DMZ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과 DMZ식물,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.

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DMZ식물의 41%(1,120종)를 보유하고 있다. 전시원에는 야광나무, 가침박달, 설앵초, 갯활량나물, 애기자운, 솜다리 등이 피어 있으며, 특히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, 백두산떡썩, 흰양귀비, 오랑캐장구채, 만병초 등을 관람할 수 있다.

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“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된 DMZ자생식물원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다. DMZ일대, 북한식물, 북방계식물 등 사라져 가는 우리꽃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겠다.”라고 하였다.

※ DMZ자생식물원(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편지봄로 916-70)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특별개방일 중 월요일(휴관일)을 제외하고, 9시부터 17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	책임자	과 장	김재현 (033-480-3001)
		담당자	연구사	윤정원 (033-480-3040)

<참고>



백두산떡쭈



만병초



너도개미자리



오랑캐장구채



황산차



하늘매발톱